



3.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이다. ㉠ ~ ㉣ 중, <보기>에서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 요즘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주변 친구들은 여러 종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교사: ㉠ (<격정스런 표정으로>) 그랬구나. ㉡ (<부드러운 말투로>) 친구들은 요즘 어떤 책을 보니?

학생: 글썽요. 소설도 읽고 유명한 사람의 자서전도 읽고, 친구들마다 서로 달라요. 전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교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책을 왜 읽으려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는 거야.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

학생: ㉢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목적이요?

교사: 그래. 내가 공부하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자 한다면 소설이나 시집을 읽는 것이 좋고, 교양을 쌓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폭넓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좋겠지.

학생: ㉣ (<머리를 긁적이며>) 그런데 목적을 정하고 서점에 가도 책이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 그럴 때에는 내가 정한 목적에 맞는 분야의 책들을 검색해 보고 그 책들의 서평을 읽는 것이 좋아. 신뢰할 수 있는 저자의 책이나 믿을 수 있는 출판사의 책이면 더욱 좋겠지. 물론 스테디셀러와 같이 정평이 나 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란다.

학생: ㉤ (<밝은 얼굴로>)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보 기 >

㉡ '반언어적 표현'이란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매개되어 의미 작용을 하는 발음, 억양,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말하며, '비언어적 표현'이란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세, 손동작, 몸동작, 표정, 눈 맞춤, 시선 등을 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 겨울 방학을 앞두고 선생님께 쪽지를 쓰려고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조 건 >

- 선생님과 구체적인 추억을 담을 것.
-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를 모두 활용할 것.

① 선생님!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 항상 격려와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를 부모님처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② 학급 단합 대회 때, 푸른 등나무 아래에서 선생님과 함께 삼겹살을 먹던 생각이 나요. 저희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③ 선생님! 내년에도 저희를 맡아 주세요. 저희가 어디로 통통 튀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고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④ 체육 대회 후, 저희들을 데리고 분식집에 가셨던 멋진 선생님! 매콤한 떡볶이를 호호 불며 먹는 저희들을 향해 호탕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⑤ 수련활동 마지막 날 밤, 모닥불을 보며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활활 타오르는 저 불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5. <보기>는 '로컬 푸드 운동'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신문 기사  
 '로컬 푸드(Local Food)운동'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운송 수단을 최소화하여, 지역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생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로컬 푸드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트의 직거래 코너 운영이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진열, 판매하는 이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생각하는 로컬 푸드 운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 통계 자료

일반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방식	43.5%	56.5%
직거래 유통 방식	55%	45%

1.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2. 유통 방식에 따른 농가 수익 비율

(다) 인터뷰 자료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로가 마땅치 않아 무농약 농사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로컬 푸드 운동에 참여하고 나서, 판로도 확보되고 수익도 이전보다 나아져 이제는 무농약 재배를 주로 하고 있죠.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부 -

- ① (가)를 활용하여, 로컬 푸드 운동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로컬 푸드 운동이 농산물 생산자의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
- ③ (가)와 (나)-2를 활용하여, 로컬 푸드 운동이 생산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로컬 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 유통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통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⑤ (나)-1과 (다)를 활용하여, 로컬 푸드 운동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6. 다음의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능을 나눕시다.”**  
**청소년 재능 기부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알리는 원고 공모**  
**주최 : ○○ 지역 신문사**

재능 기부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기부의 한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보 기 >

제목 : 청소년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I. 서론

1. 청소년의 재능 기부 현황과 인식의 실태
2. 청소년 재능 개발의 방법 ..... ㉠
3. 청소년 재능 개발의 필요성 ..... ㉡

II. 본론

1. 청소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 가. 재능 기부에 대한 홍보 및 청소년의 참여 의식 부족
  - 나. 청소년 재능 기부 프로그램의 영역 편중 심화 ..... ㉢
  - 다. 청소년 재능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2. 청소년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 ㉣
  - 가. 재능 기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청소년의 공감대 형성
  - 나. 청소년 재능 기부 프로그램의 영역 다양화

III. 결론

- 청소년 재능 기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촉구 ..... ㉤

- ① ㉠은 공모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소년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으로 수정한다.
- ②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한다.
- ③ ㉢은 ‘II-2-나’를 고려하여,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저조’로 수정한다.
- ④ ㉣에는 ‘II-1-다’를 고려하여, ‘청소년 재능 기부를 위한 학교 및 지역공동체의 연결망 구축’을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⑤ ㉤은 글의 논지를 정리하여, ‘청소년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로 수정한다.

7.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학교소식    게시판    자료실

로그인 | HOME | 회원가입 | 사이트맵

제목 : 갈등해결 매니저 모집

작성일자 : ○○고등학교 학생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밝고 명량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갈등해결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갈등 해결 매니저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 일입니다.  
 우리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 이 외에도 우리가 겪는 갈등에는 부모님과 교사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같은 눈높이로 바라봐 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깊은 학생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갈등해결 매니저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댓글

저는 갈등 해결 매니저 모집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도 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 그렇다면 갈등 해결 매니저를 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 완전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① ㉠은 문장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일을 합니다.’로 고친다.
- ② ㉡은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많은 친구들 사이의 갈등’으로 고친다.
- ③ ㉢은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데’로 고친다.
- ⑤ ㉤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정말’로 고친다.

8. 다음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 아래 ‘관용구’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예문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기본형)를 찾아보자.

**관용구** :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 ‘밭이 넓다.’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하는 것 따위이다.

**[예문]**

○ 눈에 \_\_\_\_\_ 물건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자.  
 ○ 마음에 \_\_\_\_\_ 책을 찾기 위해 여러 도서관을 다녔다.  
 ○ 아이는 우유만으로는 성에 \_\_\_\_\_ 않았는지 계속 물어댔다.

- ① 들다    ② 남다    ③ 차다    ④ 두다    ⑤ 어리다

9. 다음은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선생님:** ‘국물’은 [궁물]로 발음됩니다. 아래 <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발음되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여 발표해 봅시다.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두 입술	윗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안울림소리 (장애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		ㅅ ㅆ			ㅎ
울림소리	콧소리 (비음)	ㅁ	ㄴ		ㅇ	
	혀소리 (유음)		ㄹ			

<표> 자음 체계

- ① ‘ㄱ’이 ‘ㅇ’으로 바뀌면서 조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 ② 울림소리 ‘ㅇ’이 안울림소리인 ‘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 ③ 울림소리 ‘ㄱ’과 ‘ㅇ’이 만나 안울림소리 ‘ㄱ’을 울림소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 ④ ‘ㄱ’은 안울림소리인 ‘ㄱ’이 울림소리인 ‘ㅇ’으로 발음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⑤ 파열음 ‘ㄱ’이 탈락되고 그 자리에 비음 ‘ㄱ’과 유사한 비음 ‘ㅇ’이 덧붙고 있습니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는 학교에서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과 같은 어문 규범을 교육받고 학습한다. 어문 규범은 언중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공통된 기준이며 사회적으로 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현실에서 언중들이 이와 같은 어문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언어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현실과 어문 규범과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주장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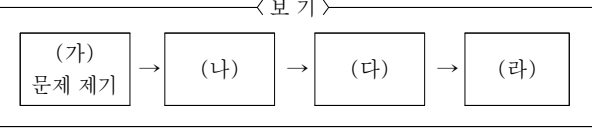
(나) 최근,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따라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문 규범을 폐지하고 아예 언중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어문 규범의 총칙이나 원칙과 같은 큰 틀만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항목 등은 사전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문 규범을 부정하는 주장이나 사전으로 어문 규범을 대신하자는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의 경우, 언어의 생성이나 변화가 언중 각각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 오히려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후자는 우리나라의 사전 편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문 규범의 모든 역할을 사전이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언어 현실의 다양한 변화를 사전에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그렇다면 현실의 언어 변화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언어 현실과 어문 규범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 번 ‘국립국어원’의 복수 표준어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복수 표준어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몇 가지가

언중들 사이에서 널리 함께 쓰이고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널리 함께 쓰이는 단어,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 등이 있다.

(라) 이것은 어문 규범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비표준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여 언어 현실과 어문규범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가령, 표준어 ‘간질이다’와 같은 뜻으로 널리 함께 쓰이는 비표준어 ‘간지럽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한 것, ㉠ ‘오순도순’과 어감 차이가 나지만 ‘오순도손’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소리 내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이는 어문 규범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전에 맡기기 보다는 현행 어문 규범을 유지하면서 언중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0. <보기>는 위 글의 논지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나) ~ (라)에 해당하는 것은?



- |   | (나)       | (다)    | (라)      |
|---|-----------|--------|----------|
| ① | 주장들과 그 한계 | 새로운 대안 | 사례와 의의   |
| ②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 의의와 전망   |
| ③ | 문제 분석     | 대안 제시  | 정리 및 요약  |
| ④ | 주장들과 그 한계 | 반론 제시  | 의견 절충    |
| ⑤ | 문제 분석     | 원인 규명  | 해결 방안 제시 |

11.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유사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감(語感)이란 말소리나 말투의 차이에 따른 느낌 등을 말한다. 어떤 단어들이 이러한 어감의 차이가 있을 경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이들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데, 가령 아이들의 웃음 ‘고까웃’과 ‘꼬까웃’이 그것이다. 두 단어의 첫소리인 ‘ㄱ’과 ‘ㅋ’은 어감의 차이가 있어 엄밀히는 별개의 두 단어이지만,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이 둘을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 |                |                |
|----------------|----------------|
| ① 수수깡 / 수수대    | ② 복수뼈 / 복송아뼈   |
| ③ 아옹다옹 / 아옹다옹  | ④ 변덕스럽다 / 변덕맞다 |
| ⑤ 출렁거리다 / 출렁대다 |                |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세기, 사진이 예술이나 기술이냐의 논쟁 속에서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진작가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회화의 기법을 수용하여 사진을 예술화하려는 것이다. 픽토리얼리즘은 회화처럼 ㉠ 밀그림을 그리고 모델을 배치하는 등의 구성을 중시하거나 사진의 표면을 뿌옇게 만드는 등의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 회화가 지닌 예술성을 사진에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픽토리얼리즘의 선구자인 로빈슨(H. P. Robinson)은 사진이 기술을 넘어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합 인화(combination printing)방식’을 이용하였다. 조합 인화 방식이란 여러 장의 사진 원판을 조합하여 한 장의 작품으로 인화하는 것이다. 로빈슨은 자신이 구상한 ㉢ 스토리에 따라 모델들의 포즈나 연기 등을 지도하여 각각의 장면을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조합하여 인화함으로써 사진도 회화처럼 창조적인 예술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작품의 내용, 인간의 이성보다 감성을 중요시했던 당시의 낭만주의적 경향을 반영하여 사진이 회화처럼 감정을 담아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집에 찾아온 봄>

위 사진은 로빈슨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집에 찾아온 봄>이다. 이 작품은 총 아홉 장의 사진 원판을 조합하여 인화한 것이다. 이는 로빈슨이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스펜서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을 위해 로빈슨은 사진을 구성할 각 장면의 밀그림을 미리 그린 후, 전체 배경에서 각각의 사진이 들어가야 할 위치와 비율을 정했다. 그리고 봄을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 드러나도록 인물의 표정과 포즈를 미리 ㉣ 계산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그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 원판들을 자신이 의도한 위치에 맞게 조합하여 최종 인화하였다. 이와 같이 로빈슨은 장면을 사진에 치밀하게 ㉤ 구성하여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로빈슨의 사진은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인 기법을 거부하는 사진가들에 의해 많은 ㉦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로빈슨의 사진은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 했던 최초의 노력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의 사진은, 사진이 작가의 창조성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당대의 뿌리 깊은 편견을 타파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원판 : 사진에서,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필름.

12. 위 글을 읽고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19세기 사람들이 사진을 예술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로빈슨이 활동하던 당시의 예술적 경향은 어떠한가?
- ③ 픽토리얼리즘이 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④ 픽토리얼리즘에서 활용한 기법은 무엇인가?
- ⑤ 조합 인화 방식의 개념은 무엇인가?

13. <보기>는 로빈슨의 작품 ‘꽃노래’이다. 그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려했을 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촬영하기 이전에 구상한 구도를 종이에 그려 보아야겠군.
- ② 촬영 전에 들판의 양떼를 미리 의도한 위치에 배치해야겠군.
- ③ 두 여인, 양떼가 있는 들판, 먼 하늘 풍경을 각각 촬영해야겠군.
- ④ 작품에서 회화성을 살리려면 이성적인 측면이 나타나도록 의도해야겠군.
- ⑤ 섬뚱한 배우들에게 흥겨운 듯이 걸어가는 모습을 연기하도록 지시해야겠군.

14.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회화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진의 고유한 예술성을 살릴 수 없다.
- ② 사진에 회화적 기법을 사용해야 사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앨 수 있다.
- ③ 사진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어렵다.
- ④ 감성을 낭만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회화적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⑤ 사진의 예술성은 인위적인 기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15.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며  
 옥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澗)하는 것일까?  
 ㉤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옥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나)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벼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무엇에** **좃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들이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 이성부, 「산길에서」 -

(다)  
 개심대(開心臺) 다시 올라 중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이천봉(萬二千峯)을 분명히 헤어 보니

봉(峰)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 저 기운 흘러 내어 인걸(人傑)을 만들고서,  
 형용(形容)도 끝이 없고 체세(體勢)도 맑기도 많구나.  
 천지(天地)를 만드실 때 자연히 되었건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하구나.  
 비로봉(毗盧峰) 맨 꼭대기 올라 본 이 그 뒤시고.  
 ㉡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 것이 **높던**고,  
 노(魯)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天下) 어찌하여 작단 말이고.  
 어와 저 경지를 어이하면 알 것인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이할까.  
 원통(圓通)골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獅子峰)을 찾아가니,  
 ㉢ 그 앞에 너럭바위 화룡(化龍)소가 되었어라.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晝夜)에 흘러 내어 창해(滄海)에 있었으니,  
 풍운(風雲)을 언제 얻어 삼일우(三日雨)를 내리려는가.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어**라.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16.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다짐이 드러나 있다.
  - 화자는 시적 대상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 화자는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
1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사-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에서 화자는 슬픈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은 ㉥에서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에서의 현실 인식은 ㉥에 나타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에서 화자는 ㉡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함축되어 있다.
  - ㉡에는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담겨 있다.
  - ㉠은 화자의 체념을, ㉡은 화자의 연민을 환기하고 있다.
  - ㉠은 화자에게 자책감을, ㉡은 화자에게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 ㉠과 ㉡에는 모두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비극성이 드러나 있다.
19. [A]와 [B]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비교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산길에서」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민중의 삶이 쌓이면 민중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현실에서 고통 받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이 길’은 화자보다 앞선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 만들어진 길로 민중의 역사로 볼 수 있겠군.
- ② ‘바람’과 ‘꽃’은 화자의 애정이 깃든 대상으로, 화자를 ‘가슴 벅차게 하는’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③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은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화자는 그들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군.
- ④ ‘부질없는 되풀이’는 힘없는 자들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꺾일 수 있다는 염려가 담겨 있군.
- ⑤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는, ‘길’을 걷는 화자도 민중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역사의식과 관련이 있군.

21. (다)의 ㉠ ~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관동별곡」은 작가가 기행하면서 자연 경물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지향하는 현실에 대한 의식을 자연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체내의 어떤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거나 적을 때에는 그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거나 촉진한다. 이와 달리 특정 상황에서는 체내에 충분히 생산된 물질임에도 그 물질을 더 많이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체내의 이런 현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세포 내에서 어떤 물질은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된다. 이때 촉매 구실을 하는 특정 단백질인 효소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각기 다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포 내에서는 산물들이 생기는데, 최종 산물은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체내의 요구량만큼 최종 산물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피드백은 화학 반응의 최종 산물이 특정 단계로 되돌아가 해당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 최종 산물의 양을 조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체내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음성피드백(negative feedback)과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있다.

[A] 이루어지는 음성피드백(negative feedback)과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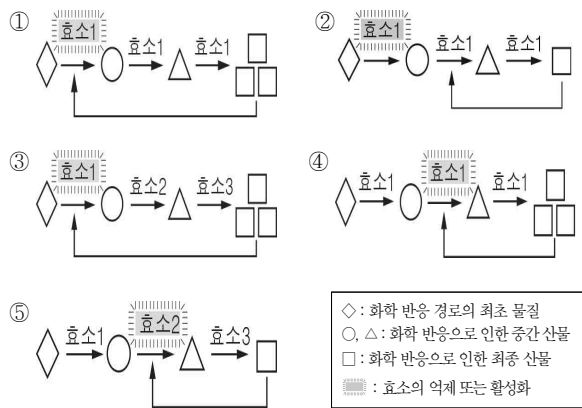
음성피드백이란 일정한 상태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산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학 반응 경로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가 억제되고, 반대로 그 양이 적어지면 화학 반응 경로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포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인 ATP를 얻는다. 그런데 ATP가 지나치게 생산되어 축적되면 피드백을 통해 화학 반응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ATP의 생산 속도를 늦춰 ATP의 양을 줄이게 된다.

이와 달리, 양성피드백이란 특정 상황에서 ㉠ 최종 산물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최종 산물이 화학 반응의 여러 단계 중, 자신의 생산에 관여하는 어느 한 단계의 효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령, ㉡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날 경우, 체내에서는 피를 응고시키는 데 필요한 최종 산물인 피브리노이 생성된다. 이때 양성피드백을 통해 특정 단계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피브리노이 더 빨리 생산, 축적되며 출혈을 멈추기에 충분한 정도가 될 때까지 최종 산물인 피브리노이 생성된다.

22.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드백의 원리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과정
- ② 피드백을 통한 최종 산물의 억제 방법
- ③ 피드백을 통한 체내 물질의 조절 과정
- ④ 피드백을 통한 최종 산물의 형태 변화
- ⑤ 피드백의 유형과 장단점

23. [A]를 바탕으로 ‘음성피드백’을 나타낸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단, 체내의 요구량은 최종 산물 1개로 가정함.) [3점]



24. ㉡을 고려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특정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 ②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 위해서
- ③ 우리 몸이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 ④ 효소의 활성화를 최소화하여 특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 ⑤ 특정 상황에서 필요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제 날을 잡아서 우리끼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마침 화제가 시들해서 별다른 의도도 없이 한 말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윤경수와 김성달이도 금방 동의를 하고 나섰다.  
 “그거 좋지. 맨날 서울 바닥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고단해 죽겠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겠단말야.”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군그래. 지금쯤 시골은 좋을 거야. 추수도 끝났잖아, 따뜻한 아랫목에 지지고 앉아서 동동주라도 한잔 마시면, 아 그 기분 서울 사람들은 모를걸.”  
 애기의 방향이 좀 엉뚱하다 싶었지만 나 자신도 그것이 굳이 싫은 것은 아니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그랬는데 최진철이는 이런 일은 기왕 애기가 나왔을 때 아주 결정을 보고 말아야지 차일피일하다가 호지부지되고 마는 법이라고 우습게 다그치는 바람에 오늘의 모임까지 발전하고 만 것이다. 그날 밤 내친 걸음에 날짜까지 정해 놓고 나머지 ㉠ 몇 가지 원칙까지 세웠다. 우선 목적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어느 날 어느 시 버스 터미널에 모여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를 잡아타고 갈 것, 짐은 일체 갖지 말고 되도록 빈 몸으로 갈 것 등이었는데, 그것은 이번 우리의 여행이 도시의 문명이나 잡담(雜沓)\* 등을 피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깊숙이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잡동사니들을 끌고 가지 말자는 의도에서였다. 누군가가 그러나 최소한도 치약·칫솔 따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자, 제안자인 최진철이 시골에 가면 왜 돌소금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걸로 닦아야 ㉡ 그런 곳에 간 기분이 나는 법이라고 우겼다.  
 “그래 좋았어. 비록 우리들의 고향은 아니라도 좋아. 고향과 엇비슷한 데로 가서 우리를 키워 준 고향 같은 무드 속에 며칠 묵혔다 오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들 넷이 모두 산골 촌놈들 아니니. 먹고 사느라고 너무 오래 그런 정경과 등을 지고 살아왔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성달이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넷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자 그러자 하고 손뼉을 치고 말했다. 김성달의 말따마나 넷은 한결같이 산골 출신이고 그런 속에서 뼈가 굵었는데, 어쩌다가 서울서 부산하게 살다 보니 십 년 이쪽 저쪽 고향에 다녀온 녀석이 없는 것도 펍 우연한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넷이 다 부모를 모셔 온다든가, 생활의 그루터기를 서울로 옮겨 온다든가 해서, 이미 고향에는 피차 아무 근거가 없는 탓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만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거의 고향과 인연을 끊고 살아온 것은 ㉢ 지방 출신으로서 좀 희귀한 일이었다. 물론 이런 연줄로 고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 동안 그쪽 소식을 풍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터이긴 해도 그것은 이미 어디까지나 풍문일 뿐 우리들의 생활과는 별로 직접적으로 닿는 데가 없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이번 여행은 극히 우연한 기회에 극히 우연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무슨 큰 벼슬을 했다거나 큰 돈을 모은 후 걸어진 길을 여유 있게 돌아보는 몸짓에서라기보다는 이제는 구차하나마 그런대로 서울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잠시 숨을 돌려보는 고갯마루에 서서 한번 생활에 휴지부(休止符)를 찍어 보는 그런 포즈에서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지도 몰랐다.

(중략)

서울로 오는 버스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말이 없었다. 그까짓 삼박사일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하루를 앞당겨 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달라진 환경 속에 다만 며칠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도망하듯

그 마을을 떠나온 데 대한 ㉣ 부끄러움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무교동이나 종로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며 산촌(山村)의 정경을 얘기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알파하고, 배부른 여담(餘談)이었던가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편으로 ㉤ 숲이 각 각 막히는 지점에서 쉽게 빠져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우리는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다방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무교동으로 나가 오백 시시짜리 생맥주를 단 한 번에 꺾어 단숨에 들이켰다.

“인제 살 것 같군.”

우리는 동시에 이런 말을 뇌까리고 그전에 그랬던 것처럼 떠돌고 웃곤 하였다. 초가을, 이 서울 동네에서 풍기는 술 냄새, 고기 냄새, 하수도 냄새에 자기를 휩쓸어 넣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헤헤거리며 지껄여 댔다.

“우린 이제 별수없이 서울 사람 다 됐는갑다.”

[A] 한참 만에 윤경수가 펍 힘없이 얘기하자 김성달이나 최진철도 그래, 그런 모양이야 하고 동의를 했다. 술집을 나오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요량으로 각기 과자봉지 하나씩을 사 들고 불광동으로, 미아동으로 중곡동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서로 잘 가라고, 또 만나자고 손을 흔들 때 나는 이놈들아, 우리들이야말로 촌놈이라고, 형편없는 촌놈이라고 속으로 몇 번씩이나 되뇌었다. 동시에 우리들의 등골뼈 밑으로 칠팔 센티미터쯤 자란 속물(俗物)의 꼬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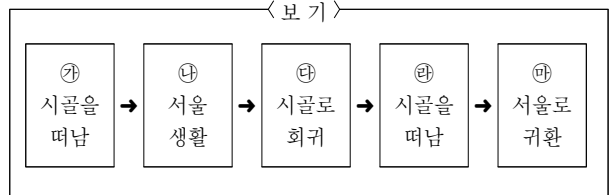
- 최일남, 「서울 사람들」 -

\* 잡담(雜沓): 사람들이 많이 몰려 복잡복잡하고 복잡함. 또는 그런 상태.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체험한 인물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있다.
- ②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액자식 구성을 통해 과거의 두 체험을 관련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이 체험한 다양한 사건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건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6. 위 글의 사건 전개 양상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 ㉢에서의 ‘떠남’에 대한 이유는 각각 다르다.
- ② ㉡와 ㉤에서 느끼는 ㉣의 ‘시골’에 대한 인식은 각각 다르다.
- ③ ㉢는 ㉡에서의 고단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는 ㉡에서 계획한 대로 실행된 것이다.
- ⑤ ㉤에서는 ㉢로 인해 ㉡를 재인식하고 있다.



2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여행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세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② ㉡은 자신들이 떠날 여행에 대한 들뜬 기대라 할 수 있다.
  - ③ ㉢은 여행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④ ㉣은 자신들이 찾아가던 여행지에 대한 실망감이라 할 수 있다.
  - ⑤ ㉣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던 여행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28. [A]의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을 되찾은 것에 안도하고 있다.
  - ② 도시인의 소시민적 속성에 대해 자조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자녀를 챙기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시골 출신으로 겪는 소외감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일부 인류학자들은 결혼이나 가족 등 문화의 일부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모든 문화가 '야만→미개→문명'이라는 단계적 순서로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입장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문화도 부분만으로는 총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를 이루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바라보았다. 어떤 민족이나 인간 집단을 연구할 때에는 그들의 역사와 지리, 자연환경은 물론,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과 가족제도, 경제체제, 인간 심성 등 모든 측면을 서로 관련지어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총체적 관점이라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요르트 부족의 이야기는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과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20세기 초까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여요르트 부족사회에서 돌도끼는 성인 남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돌도끼의 제작과 소유는 남녀의 역할 구분, 사회의 위계질서 유지, 부족 경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백인 신부들이 여성과 아이에게 선교를 위해 선물한 쇠도끼는 성(性) 역할, 연령에 따른 위계와 권위, 부족간의 교역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여요르트 부족사회는 엄청난 문화 해체를 겪게 되었다.

쇠도끼로 인한 여요르트 부족사회의 문화 해체 현상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만약 문화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쇠도끼의 유입은 미개사회에 도입된 문명사회의 도구이며, 문화해체는 [                      ㉠                      ]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쇠도끼의 유입이 여요르트 부족에게 가지는 의미와 그들이 겪은 문화 해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 총체적 관점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여요르트 부족사회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총체적 관점은 사회나 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9. '여요르트' 부족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쇠도끼를 수용하였다.
  - ② 돌도끼는 성인 남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였다.
  - ③ 쇠도끼의 유입은 타 부족과의 교역을 활성화시켰다.
  - ④ 자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 외부와의 교류를 거부하였다.
  - ⑤ 백인 신부들이 선물한 쇠도끼로 남녀의 역할 구분이 강화되었다.

30.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화 발전을 퇴보시키는 원인으로 이해할 것이다.
  - ②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도기로 이해할 것이다.
  - ③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것이다.
  - ④ 사회가 혼란해져 문화 발전이 지연되는 단계로 이해할 것이다.
  - ⑤ 현재 문화를 미개 사회의 문화로 회귀시킨 현상으로 이해할 것이다.

31. ㉠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학생들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기어츠는 A 나라의 문화 현상 전반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는 A 나라의 전통놀이인 닭싸움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걸고 이 놀이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의 내기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과 달랐다. 그들은 자금 사정이나 승패의 확률에 따라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친족의 닭이나 동네 사람의 닭에 돈을 걸었다. 특히 친족이나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친밀감이 클수록 더 큰돈을 걸었다.

- ① A 나라의 역사와 관련지어 전통놀이인 닭싸움을 이해해야겠군.
- ② A 나라에서 닭싸움이라는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인간관계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
- ③ A 나라 닭싸움의 내기 방식은 동네마다 차이가 있는 경제적 활동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야겠군.
- ④ 기어츠는 A 나라의 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닭싸움과 가족, 지역, 법률 등을 서로 관련지어 살펴보았겠군.
- ⑤ 기어츠는 A 나라의 닭싸움을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통찰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겠군.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사회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기업이 있는 반면,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를 '사회적 기업'이라 한다. 이러한 기업은 환경 문제, 취약 계층의 복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 사회적 기업은 혼성 조직, 자원 동원의 다양성, 민주적 조직 운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자. 버려진 물건으로 조형물을 ㉠ 만들고 이를 전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A기업의 경우, 그 수익의 70% 정도를 환경 단지에 기부한다. 그 전시회 활동과 수익 기부 활동을 보면 A기업이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익성과 이를 위한 이윤 추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성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취약 계층 사람들을 고용하여 결식 이웃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업체 B기업의 경우, 도시락 판매로 얻은 수익만으로는 지속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B기업은 기부나 후원, 정부 보조 등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자원을 동원하는데, 이는 자원 동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B기업에서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창립자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 구성원들과 동등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 모아서 기업이 운영된다. 이는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사회 또는 지역공동체의 취약 계층에 ㉢ 되돌려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약기 연주가 가능한 미취업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정기 연주회를 열어 얻은 수익을 장애인 복지 사업에 기부하는 C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미취업 장애인 고용을 통해 취약 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활동에서 창출한 이윤을 장애인 복지 사업에 기부하여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했다. 이는 취약 계층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을 줄여 사회 통합에 ㉣ 보탬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취약 계층의 실업률 급증, 사회 복지 서비스 부족, 환경 문제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은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 떠오르고 있다.

[A]

32.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기업의 역할
- ② 사회적 기업의 권한
- ③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 ④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 사례
- ⑤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

\* 다음은 사회적 기업인 ○○ 기업의 '규약문' 일부이다. 33번과 34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1조(명칭) 여성 가정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과 간병 서비스 활동에 대한 규약

1. 이 규약에서의 여성 가정이란 저소득층 가정에서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이 규약에서의 간병 서비스 활동은 유료 간병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간병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2조(목적)

1. 여성 가정에게 간병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2. 무료 간병 서비스 제공 사업을 기반으로 유료 간병 사업을 개시하여 자립 기반을 형성한다.

제3조(운영)

1. 정부와 일반 기업, 비영리기관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기업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2. 모든 직원들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한다.

33. 위 글을 바탕으로 '규약문'을 보았을 때, ○○ 기업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제1조-2'를 보니, ○○ 기업이 혼성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제2조-1'을 보니, ○○ 기업의 자원 동원의 다양성을 알 수 있군.
- ③ '제2조-2'를 보니, ○○ 기업의 민주적 조직 운영의 특성을 알 수 있군.
- ④ '제3조-1'을 보니, ○○ 기업의 혼성 조직의 특성을 알 수 있군.
- ⑤ '제3조-2'를 보니, ○○ 기업의 자원 동원의 다양성을 알 수 있군.

34. [A]를 참고할 때, 규약문의 '제2조(목적)'에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② 기업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기본 생활의 유지를 위해 기업 내의 복지 체제를 마련한다.
- ③ 간병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 ④ 기업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을 정부의 관련 기관에 홍보하여 유료 간병 사업을 확대한다.
- ⑤ 유료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간병 서비스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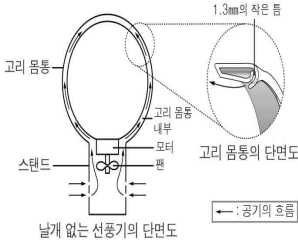
35. ㉠ ~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제공(提供)하고                      ② ㉡: 수렴(收斂)하여
- ③ ㉢: 환원(還元)하여                      ④ ㉣: 일조(一助)한
- ⑤ ㉤: 부상(浮上)하고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풍기가 처음 개발된 이후, 동력이나 기능은 달라졌지만 날개가 회전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한 회사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했다. 날개가 없는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날개 없는 선풍기는 스탠드와 고리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탠드의 내부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제트엔진처럼 팬과 모터가 있다. 고리 몸통은 내부가 비어 있어 공기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둥근 고리 몸통을 따라 난 작은 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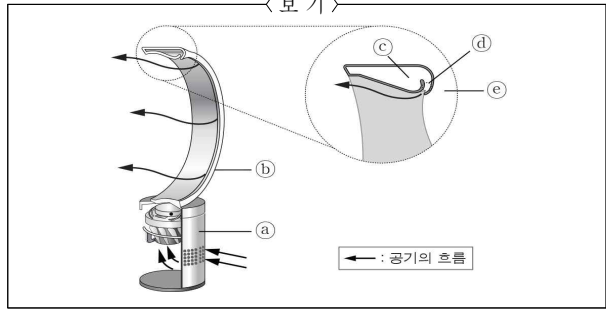
또한 고리 몸통 단면의 형태는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는 고리 몸통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행기 날개의 경우, 윗면이 아랫면보다 볼록하다. 공기는 비행기의 평평한 아랫면보다 볼록한 윗면을 지나갈 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데, 공기의 속도가 빠르면 기압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린 아랫면의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이 작용해 이동하므로, 기압이 높은 날개의 아래쪽에서 기압이 낮은 날개의 위쪽으로 힘이 작용해 공기가 이동하면서 비행기가 뜨는 것이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 몸통 단면에도 ㉠이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바람을 만들기 위해 우선 스탠드의 팬을 작동하여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렇게 흡입된 공기는 고리 몸통 내부로 올라가는데, 이때 스탠드의 내부보다 좁아진 고리 몸통 내부의 공간으로 인해 약 88km/h 정도로 그 유속이 빨라지게 된다. 또한 고리 몸통 내부로 빠르게 밀려 올라온 공기는 1.3mm의 작은 틈을 통해 고리 몸통 밖으로 나온다. 이때 고리 몸통 내부의 공간보다 훨씬 더 좁은 틈 때문에 공기가 더 가속된다. 이렇게 빨라진 공기로 인해 고리 몸통 안쪽의 기압은 낮아지고 고리 몸통 바깥의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가 고리 몸통 내부에서 나온 빠른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여 합쳐지면서 바람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고리 몸통 안쪽을 통과하는 공기의 양은 처음 스탠드에 흡입된 공기의 양보다 1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36.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선풍기의 외형과는 차이가 있다.
- ② 공기의 속도에 따른 기압 차이를 활용한 것이다.
- ③ 고리 몸통 내부의 공기의 속도는 약 88km/h 정도이다.
- ④ 스탠드에 있는 1.3mm의 작은 틈은 고리 몸통을 따라 나 있다.
- ⑤ 고리 몸통의 단면은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뒤집어 놓은 구조와 비슷하다.

37. <보기>는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만드는 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 있는 팬이 작동되어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 ② b에 흐르고 있는 공기는 a보다 좁아진 공간으로 인해 속도가 빨라진다.
- ③ c의 공기는 d를 빠져 나오면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
- ④ 고리 몸통 바깥 공기인 c는 고리 몸통 안쪽과의 기압 차이로 인해 c의 공기 양보다 15배 정도가 더 많다.
- ⑤ 고리 몸통 바깥 공기인 c가 기압 차이에 의해 고리 몸통 안쪽으로 흘러, a에서 나온 공기와 합쳐지면서 선풍기의 바람이 된다.

38.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풍이 불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안가 주변 집들의 창문이 깨지기도 한다.
- ② 풍선을 불었다가 놓으면, 풍선에서 빠져 나오는 바람으로 인해 풍선이 공중으로 날아간다.
- ③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한다.
- ④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응급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사이렌 소리가 커지고 멀어지면 사이렌 소리가 작아진다.
- ⑤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 차의 상부보다 하부로 공기가 빠르게 흐르도록 하여 전복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도령이 하는 말이,

“두 사람이 다정하니 천만세를 기약하겠구나. 나는 죽어 새가 되  
되 난봉, 공작, 원앙, 비취, 두견, 접동일랑 다 버리고 **청조(靑鳥)**  
라는 새가 되고, 너는 죽어 물이 되되 황하수, 폭포수, 구곡수 다  
버리고, **음양수**란 물이 되어 밤낮없이 물에 떠서 동실동실 놀자꾸  
나. 너는 죽어 회양 금성 들어가서 오리목이 되고 나는 삼사월 쉼  
덩굴이 되어, 밑에서 끝까지 끝에서 밑까지 끝끝들이 휘휘 친친  
감겨 있어 일생 풀리지 말자꾸나.”

이렇듯 즐기다가 날이 새면 몸을 숨겨 돌아오고, 어두우면 천방지  
방 달려가서 자취 없이 다니기를 여러 날이 되었더라.

이때 남원부사 선치(善治)함을 성상께서 들으시고 ㉠ 승품으로  
호조판서를 제수하시고 부르시는 공문이 내려오니, 부사가 날을 정  
해 출발할 새, 이 도령 불러 이르기를,

“너는 부녀자를 모시고 먼저 올라가라.”

하니 이 도령이 이 말을 듣고 간담이 떨어지고 정신이 나가 목이  
메어 겨우 대답하고, 안채에 들어가 떠날 차비를 차리는 체하고 바  
로 춘향의 집으로 가니, 춘향이 바빠 나와 이 도령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울며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이 일이 어인 일고. 이 설움을 어찌 할꼬, 이제는 이별이 절로 될  
지라. 이별이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볼 임이로다, 이별마다  
싫다 하되 살아 생이별은 생초목에 불이로다. 이승 이별이야 이별  
이 원수로다, 남북에 군신 이별, 역로에 형제 이별, 만리에 처자 이  
별, 이별이 다 싫건만 우리같이 설운 이별 또 어디 있을쏘냐. 답답  
한 이 설움을 어이하리.”

이 도령이 두 소매로 낫을 싸고 훌쩍훌쩍 울며 하는 말이,

“울지 마라, 네 울음소리에 구곡간장 다 녹는다. 울지 마라, 평생  
에 원하기를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삼월 봄이  
다 가도록 떠나 살지 말자고 했지 않더냐? 인간에 일이 많고 조물  
이 시기하여 금일 이별을 당하지만 설마 긴 이별 될쏘냐?”

춘향이 울며 말하기를,

“도련님 올라가시면 나의 일신 그 아니 가련하오. 누굴 바라고 살  
잔 말고? 하지일과 동지야에 이 설움을 어이 하잔 말고. 날 죽이고  
올라가요.”

이 도령 말하기를,

“사또께서 호조판서를 아니하고 이 고을 사또나 하시더면 이 이  
별이 없을 것을. 내게는 이런 원수가 없다마는 울지 마라. 우리  
연분은 청송녹죽(靑松綠竹) 같아서 무너지고 끊어질 줄 없을지  
니, 설마 **후일 상봉**하여 그리던 회포를 못 퍼볼까?”

슬픈 마음 달래보며 마지못해 이별할 새, 눈물을 금치 못하는지라.

이 도령이 주머니를 열고 **면경(面鏡)**을 주며 말하기를,

“장부의 뗏뗏한 마음이 면경과 같아 변치 아니리라.”

춘향이 답 말하기를,

“도련님이 이제 가면 언제나 오려시오? 절로 죽은 고목에 꽃 피거  
든 오려시오? 벽에 그린 황계 짧은 목 길게 늘어 두 날개 땅땅 치

고 끼끼오 울거든 오려시오? 금강산 상상봉에 물 밀어 배 등등 뜨  
거든 오려시오?”

하며 **옥지환** 벗어내어 도련님 주며 말하기를,

“계집의 높은 절개는 이 옥지환과 같을지라. 천만년이 지나간들  
옥빛이야 변하리까.”

이 도령이 우리 만날 날이 빨리 올 것이니 ‘부디부디 잘 있거라’ 하  
고 **노래**를 지어 주니,

“잘 있거라 잘 다녀오마, 간들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쏘나. 잠  
깨어 곁에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춘향이 받아 보고 **화답**하기를,

“간다고 설위 마오, 보내는 내 안도 있소. 첩첩산중 깊은 물 부디  
평안히 가오. 가다가 긴 한숨 나거든 난 줄 아오.”

십 리 밖에 나와 전송할 새,

춘향이 여쭙기를,

“떠나는 회포는 측량할 수 없거니와 부디 학업이나 힘써 입신양  
명하여 부모께 영화(榮華) 뵈고 나도 수이 찾으시오. 머리 위에  
손 없고 기다리이다.”

[A] 이 도령이 말하기를,

“그런 말이야 어찌 형언하리. 부디 믿음을 지키어 내 오기를 고  
대하라.”

하고, 마지못하여 말에 올라 서울을 향할 새, 돌아보고 돌아보  
니 한 산 넘어 오리 되고 한 물 건너 십 리 되매 춘향의 형용이 묘  
연한지라. 할 수 없어 긴 근심 짧은 탄식 벼슬 삼아 올라 가니라.

춘향이 이 도령을 보내고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고 북쪽 하늘 바  
라보니 이미 멀어졌는지라. 하릴없어 집에 돌아와 의복 단장 전패하  
고 분벽사창(粉壁紗窓)\* 굳이 닫고 무정세월을 시름 속에 보내더라.

- 작자미상, 「춘향전(경판본)」 -

\* 분벽사창(粉壁紗窓) : 여자가 거처하며 아름답게 꾸민 방.

39.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은 이 도령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② 남원부사는 이 도령과 춘향 두 사람에게 이별할 것을 권하였다.
- ③ 춘향은, 남원부사가 이도령에게 내린 명(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④ 성상이 남원부사에게 높은 벼슬을 제수한 것은 그의 고매한 성품 때문이다.
- ⑤ 이 도령은 남원부사인 부친에게 말하지 않고 춘향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경판본 <춘향전>은 사건 전개가 '결연→이별·시련→재회'로 진행되고 있다. '결연'에서 이 도령은 진지하지 않고 장난스러움이 있는 유희적 감정으로 춘향을 만난다. 그러나 이 도령은 '이별'에서 춘향의 변함없는 태도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변화하게 되어 춘향과의 '재회'를 약속하며, 후에 이를 실천한다. 한편 '이별'에서 보여준 이 도령에 대한 춘향의 애정은 춘향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게 하며, 이 도령과의 '재회'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 ① 춘향과 즐기던 이도령의 '말'에 비해 춘향과 이별하는 이도령의 '노래'에 그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겠군.
- ② 이 도령이 자신은 '청조'가 되고 춘향은 '음양수'가 되라고 말한 것은 이 도령의 유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③ 이 도령이 춘향에게 준 '면경'은, '후일 상봉'이라는 약속 실천에 대한 이 도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소재이군.
- ④ 춘향이 이 도령에 건네 준 '옥지환'은 이 도령에 대한 춘향의 변함없는 애정이 담긴 정표라 할 수 있겠군.
- ⑤ 춘향이 이 도령에게 불러준 '화답'에는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예견하며 이를 극복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군.

41. 사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해 춘향이 보였을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천벽력(靑天霹靂)이구나.
- ② 명재경각(命在頃刻)이구나.
- ③ 사상누각(沙上樓閣)이구나.
- ④ 자승자박(自繩自縛)이구나.
- ⑤ 고립무원(孤立無援)이구나.

42.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을 때, 새롭게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이렇듯이 이별할 제, 방자 놔 거동 보소. 외당 통탕 바삐 와서, “아나 이 애 춘향아! 이별이라 하는 것이 도련님 부디 편히 가오. 오나 춘향 네 잘 있거라. 이것이 어찌 날이 기울도록 이별이란 말이 되단 말이나? 단삼 초에 사또 아시면 도련님 꾸중 듣고 나는 곤장 맞고 너의 늙은 어미 형문 맞고 귀양 가면 네게 유익하겠느냐? 아서라 울지 말고 잘 있어라.”

하며 나귀를 채 쳐 몰아 이 모퉁이 지내어 저 모퉁이 지내어 박석고개를 넘어서니 요만큼 보이다가 저만큼 보이다가 밤지내를 지내어 가뭇없이 올라가니, 춘향이 할 일 없어 잔디를 와드득 와드득 쥐여 뜯으며 울더라.

— 작자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 ① 새로운 인물을 통해 두 사람의 작별을 마무리한다.
- ② 떠나는 인물의 내면적 심리를 공간의 이동과 함께 나타낸다.
- ③ 새로운 인물의 말을 통해 서둘러 이별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꿈으로써 인물의 비통함을 부각한다.
- ⑤ 떠나는 인물의 모습을 점차 멀어지게 표현하여 남아 있는 인물의 안타까움을 환기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서폐를 발견한 곰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부서폐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만, 정작 곰치는 배 주인인 임 영감이 빛을 갓지 않으면 배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바다에 나가지 못한다. 곰치는 아들 도삼의 친구인 연철이와 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 영감을 만나러 갔다. 한편 범쇠 영감은 연철이가 남몰래 연정을 품고 있는 슬슬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며 구포덕을 찾아온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곰치와 구포덕이 수락한다면 임 영감의 빛을 대신 갓아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구포덕은 이를 거절한다.

구포덕 영감 마음은 우리 슬슬이를 예뻐네 삼고 싶다는 것이여!

곰치 ㉠(크게 놀라) 뭣이라고?

연철 예뻐네? (말문이 막혀) 어허허- (침통한 얼굴로 감전당한 듯 서 있다)

구포덕 술집 계집 만드는 것이 아니람시러 필적필적 뛰드니 입이 닳아저라 사정사정 하는 것을 내가 하도 독살스럽게 함개로 코가 쭉 빠져서는.....

곰치 (깊은 생각에 잠기며) 하긴 범쇠만 나무랄 일이 아니여..... (별안간 언성을 높여) 그라제만 이 곰치가 아직은 두 눈이 멀뚱하던 그 말이여! 이만 원 빚세 내가 쳐? (노기를 띠어) 미친 놈! 쓸개 빠진 놈! 흥!

[A] 연철 (곰치에게 우루루 다가가선 살기 찬 음성으로) 아자씨! 그레 그놈의 영감을 가만 뒤흐? 그런 말을 씨볼대는 그놈의 주둥이를 그냥 뒤흐? (주먹을 불끈 쥐어 허공을 내젓는다)

곰치 (무뚝뚝하게) 그런 소리 하면 뭣써! 지놈 욕심이 그런 것을 든 죄 지었다고 죽여? ㉡(태연하게) 내버려뒤흐! 내가 이기면 그만이여! 지면 할 수 없어! 이겨사제!

연철 그라제만 그런 말을. (심한 고통을 참고 섰다)

구포덕 그나저나 임영감 만나 보셨어요?

곰치 누가 놀러 댕겼어?

구포덕 원, 말도 모지게도 하요거! 일이 으찌께 댕났 그 말이 제..... 은제 임 영감 만나고 은제 고기잡고.....

곰치 오늘 같은 날 배를 안타고, 이 곰치가 배겨날 것 같어? 중선배를 못 타면 남의 똥망배라도 끼어 타야제..... (광적으로) 나도 오늘 배 탕다! 중선배에 부서는 아니어도 똥망배 타고 고기 잡았다! (뚝 쪽을 향해 자꾸 손가락질을 해 대며) 느그들만 고기 잡았어? 응?

구포덕 속 끓이지마쎌예..... 이라지 마쎌예..... (연철에게) 우리 배는?

연철 내일 모래까지 뱃삿 치르기로 하고..... (뚝뚝히) 배는 풀렸오!

구포덕 (좋아 필적 뛰며) 응! 풀렸어!

곰치 내일 배 푼다! (생기가 돈 얼굴로 야릇한 웃음) 으호호!

구포덕 내일사 풀어? 이고 속 터져! 남들은 아침 절에 두 배를 푸는디!

[B] 곰치 그것을 누가 몰라? (안타깝게) 간쪽이 썩어 문들어진다! 그레 몇 십 년 만에 처음 백힌 부서폐를..... (주먹으로 마루를 툭 치며) 이것을 그냥..... 그냥 남의 그물 속에다만 처넣어 주고 있던 말이.

구포덕 ㉢(덩달아 몸을 부르르 떨며) 이고 속 터져! (웃고름으로 두 눈을 꼭 누르고 나선) 시상에! 바다에다 묵숨 붙여

묵고 삼시려는 좋은 일이 있었어? 물줄 같은 아들들만 셋이나 지사 지내고..... (흐느낀다)

[C] 곰치 (벽력같이) 또 그 소리! 미쳤어? (발악적으로) 시끄러! 구포덕 속이 타서 그란하요? 몇 년 동안 배 붙여 묵음시로 죽고 살고 해야 뱃삿 질러 넣다 지치고는 목구멍 풀칠이나 으찌께 하다 봉개는 이만 원 빚만지고, 부서폐가 사태 났다는디도 멀뚱하게 보라꼬 앉아만 있을랑개는 속이 썩어 그라제머.

곰치 (처절하게) 뱃놈 한 세상 그래서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란 말이다! 팔뚝에 심줄이 사내끼같이 꼬였어도 돈을 몰아 봤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제며) 내 배도 없이 남의 배에 얹혀 묵고 사는 팔자에 사설은 든 사설이란 말이여?

연철 (곤란한 입장을 회피하기라도 하려는 듯) 저어..... 도삼이는 으디 갔지라우?

구포덕 (힘 없는 목소리로) 뚝에 나갔는다.....

연철 (망설이다간) 슬슬이는?

구포덕 즈그 아버지 찾으러 나갔었다..... 동네에 있겠제, 으째서?

연철 (당황해서) 아, 아니라우! 나 좀 나갔다 올랍니다..... (빠른 걸음으로 퇴장)

구포덕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 없다간 갑자기 곰치의 팔을 붙들고) 예에? 도삼이 아버지!

곰치 (건성으로) 으째 그러?

[D] 구포덕 (애길조로) 요참물에 빗만 빼면 아조 물으로 나가서는 땅이나 파묵고 삼시다! 예에?

곰치 (두 눈을 부라려 뜨곤) 뭣이라고? (벌떡 일어서며) 미친 소리!

[D] 구포덕 (따라 일어서며) 아조 그랍시다 예에?

곰치 (완강하게 뿌리치며) 미친 소리 마럿! 내가 눈 속에 흠들 때까지 그물을 놓나 봐라! 그물을 놔? 바다를 떠나? 어렵 없는 소리 마라! 기어코, 기어코 똥망배 하나라도 장만하고 말 것잉개!

구포덕 ㉤(악에 받쳐) 그람 똥망 죽잔 말이요? 이렇게 눈치보고만 살다가 뱃혀 죽잔 말이요?

곰치 죽어? 아니 이 곰치가 으째 죽어? 곰치는 안 죽는다.

[E] 구포덕 (기진해서 체념조로) 후유- 당신 맘대로 하쎌그라! 당신 고집대로만 하잔 말이여! (울먹이는 소리로) 날이 갈 수록 그저 밤낮으로 아른그리는 것이 죽은 아들놈들 얼굴이고..... (비명처럼) 못살어! 못살겼어!

[E] 곰치 그 소리 싹 집어치지 못해? (구포덕의 코앞에다 손가락 샷대질을 해대며) 내가 여기를 떠? 이것야! 생각 좀 해 봐라! 삼대가 다 물속에서 죽었어! 곰치가 그물을 손에서 놓는 날에는 차라리 배를 갈르고 말거여!

구포덕 그레, 내가 뭣이라고 했길래 이 수선이요? 삼대가 아니라 십대라도 물귀신 만들면 씨언할 거 아니요? (양 무릎 사이에서 얼굴을 묻으며) 이고오! 내가 못하러 저 새끼를 낳등고? 못한다고 늙은 년이 또 아들을 퍼 내질렀어?

(우편 방 속으로 갓난애 울음 터진다. 구포덕 비틀비틀 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곰치 낫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

- 천승세, 「만선」 -

43. 위 글을 감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을 전개하는 핵심 소재를 파악하도록 한다.
  - ②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 ③ 인물의 대사를 통해 무대 밖의 사건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④ 사투리 사용이 극의 분위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⑤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인물의 대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45. ㉠ ~ ㉣에 대해 연출자가 배우에게 지시했을 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곰치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연기해 주세요.
  - ② ㉡은 범석와의 관계를 생각한 곰치가 현재 상황을 회피하는 것처럼 연기해 주세요.
  - ③ ㉢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구포택의 분함 이 느껴지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④ ㉣은 구포택이 깊이 생각한 후에 내린 결정을 곰치에게 말하려는 모습으로 연기해 주세요.
  - ⑤ ㉣은 구포택이 곰치에게 모질게 대드는 모습이 보이도록 연기해 주세요.

4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희곡은 갈등의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곡에서 인물의 갈등은 인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만선」의 한 장면에는 이러한 인물의 갈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갈등 양상을 살피는 학습 활동을 해 보도록 하죠.

- ① [A]는 슬슬이에 대한 연정으로 인해 연철의 갈등이 표출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② [B]는 배가 없어 부서폐를 잡을 수 없는 곰치의 갈등이 표출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C]는 부서폐를 잡지 못하는 곰치와, 그 이유를 곰치 탓으로 돌린 구포택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④ [D]는 곰치와 구포택이 미래의 삶에 대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갈등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⑤ [E]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구포택과 어부로서의 집념을 드러내는 곰치와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